



##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 아가

1-3:5 사랑에 빠짐

3:6-5:1 사랑의 연합

5:2-7:10 사랑의 갈등

7:11-8:14 사랑이 자라남

## 6/22(월) 하나님 숨결

출애굽기 12] 유월절

아가 1-5]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가서는 유월절 절기에 낭독되었습니다.

유월절은 해방과 구원의 절기입니다. 매년 지키는 의식 속에 유월절 정신은 퇴색되고 축제는 제도로 고착되었습니다.

유월절 아가서 낭독은 공적이고 역사적인 하나님 관계를 내향적이고 친밀하고 개인적 관계로 끌어오게 합니다.

아가서는 남녀의 친밀하고 아름다운 사랑 표현을 통해 하나님과의 애틋한 관계와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의 구원과 유월절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 6/23(화) 참된 사랑

에스겔 16] 음행과 배신

아가 6-8] 창조 순리 안에서 본 남녀의 친밀함

하나님은 <여인>에 관한 풍유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여인이 너다! >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하여 유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회복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편,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관계의 순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풍성한 친밀감과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 전도서

- 1:1 전도자 소개
- 1:2-11 헛되고 헛되다/전도자 시
- 1:12-2:26 회상
- 3:1-15 전도자의 시
- 3:16-4:16 회상
- 5:1-9 전도자의 케리그마
- 5:10-6:9 회상
- 6:10-7:14 이익의 문제
- 7:15-10:20 회상
- 11:1-12:7 전도자의 케리그마
- 12:8 헛되고 헛되다
- 12:9-14 편집후기

## 6/24(수) 헛된 스펙

전도서 1-6장] 모든 것이 헛되다

유대인 공동체는 귀환 후 꾸준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지배를 받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급격한 경제변동으로 인한 혼란과 빈부격차,  
헬라문물과 정신을 선호하는 <헬라스펙 쌓기> 붐이 일어났습니다.  
제국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전도자는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막절에 전도서를 낭독하면서  
스펙과 지혜로도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창조세계의 운행,  
하나님을 통한 공급하심을 묵상했습니다.  
더 나은 스펙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하거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움켜쥔 모든 것은  
결국 헛된 것(空)입니다.

## 6/25(목) 창조 스탠더드

전도서 7-10장] 분복을 누리는 삶

전도서를 자칫 회의주의, 염세주의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지혜, 스펙,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과연 무한 신뢰할 존재인가? 인간이 고안한 모든 것이  
선하고 완벽한가? 모두에게 같은 스펙을 강조하는 것이 맞나?  
그런 삶이 진정 행복한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피력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성공 도식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향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순리, 나다움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는 각자 누릴 분복이 있습니다. 고유의 가치와 존재 이유,  
나름의 분복을 누리도록 창조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묻고, 각자에게 부여하신 <이름>대로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모든 과정이 내가 습득할 참 스펙입니다.